

전북자치도민체전 성공 개최 기원

순창 회문산 정상서
성화봉송 행사 개최
오늘 출정식 통해
마지막 봉송 후 접화

순창군이 5일 순창군 회문산 정상에서 제61회 전북특별자치도민체육대회 시작을 알리는 성화봉송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군은 같은 날 순창향교 대성전에서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하는 천제를 봉행했다. 행사에는 최영일 순창군수, 손종석 순창군의회 의장, 손충호 순창군체육회장이 참석했으며, 유관기관 및 사회단체장, 그리고 다수의 지역 주민들도 함께 자리를 맞췄다.

이날 접화된 성화는 최초주자인 김용식 순창군 노인회장에게 전달돼 차당과 주지봉송으로 11개 읍면 13개 구간을 순회한 후 순창군청 광장에 안치됐다.

이후 성화는 대회 개최식 날인 오는 6일 오후 3시 출정식을 통해 순창공설운동장으로 이동해 마지막 봉송



5일 순창군 회문산 정상에서 제61회 전북특별자치도민체육대회 시작을 알리는 성화봉송 행사가 열린 가운데, 최영일 순창군수(사진 왼쪽)가 성화 불을 밝히고 있다.

후 접화돼 대회기간 동안 제61회 전북특별자치도민체육대회의 성공과 안녕을 기원하며 순창군을 환히 밝히게 된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화합 체전에 대한 180만 전북도민의 염원을 담은 성화가 대회 마지막 날까지 힘차게 타고 오를길 바란다"면서, "대회에 참가하

는 모든 시군 선수가 그동안 흘린 땀방울만큼 값고된 실력을 마음껏 발휘하고 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순창=이왕원 기자



'제17회 파리 패럴림픽'에 육상 국가대표로 참가한 진안 출신 전민재 선수가 여자육상 100m에서 14초95의 기록으로 7위, 200m에서 30초76의 기록으로 5위를 차지하며 대회를 마무리했다. (사진=대한장애인체육회 제공)

전민재, 파리 패럴림픽서 유종의 미

여자육상 100m 결선서 7위 · 200m서 5위 차지
"연맹 임원 반대로 생활보조 지원 못받아" 토로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9일까지 프랑스 파리에서 진행되는 '제17회 파리 패럴림픽'에 육상 국가대표로 참가한 진안 출신 전민재 선수가 여자육상 100m에서 14초95의 기록으로 7위, 200m에서 30초76의 기록으로 5위를 차지하며 대회를 마무리했다.

대한민국 장애인 육상을 대표하는 전민재 선수는 전북장애인체육회 소속으로 진안군 진안을 반월리에서 거주 중이며 여자 장애인 육상 종목의 전설적인 선수이다.

2016년 리우데자네이루 패럴림픽 200m 은메달을 비롯하여 2023년 항저우 아시안 패럴림픽 100m와 200m 두 종목 은메달 등 각종 세계대회에서 많은 메달을 획득했다.

전준성 진안군수는 "이번 패럴림픽에서도 최선을 다해준 전민재 선수에게 축하와 감사를 전한다"며 "진안군에서도 계속적인 지원과 관심을 통해 전민재 선수가 앞으로 참가하는 대회에서도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민재 선수는 "2026 나고야·아이치 장애인아시안경기대회까지 하려고 한다"며 "그때가 정말 마지막이다. 트랙에서 메달을 딸 수 있는 선수가 전민재러이다. 그래서 은퇴하지 않으려고 한다. 딱 그때가 마지막이다. 그때까지 전민재 선수를 기억해 주시라"고 말했다.

한편, 전민재 선수는 연맹에 대한 불만도 토로했다. 뉴스시 보도에 따르면, 그는 "올해는

생활보조가 들어올 수 없어서 훈련하는 데 불편함이 많다. 몇 년 동안 엄마가 생활보조로 들어오셔서 제 옆에서 손발이 꽤 쥘겨주셔서 운동에만 전념할 수 있었는데, 엄마가 없으니 여러모로 불편한 게 많아서 운동하는 데 애로사항이 많았다"고 밝혔다.

이어 "운동선수는 식단이 제일 중요한데 트레이너가 잘 챙겨주는 했지만, 식사 시간이 제일 불편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난 손이 불편하고 말을 못 해서 생활보조가 누구보다 필요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육상연맹 임원 한 분이 강력하게 반대해서 올해 생활보조가 함께할 수 없었다"며 "내 입장에서 너무 억울한 상황이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연맹(임원)은 개인적인 감정으로 부당하게 전민재 선수는 생활보조가 없어도 혼자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했다"면서 "내 의사는 1%도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임원의 반대로 엄마가 생활보조로 들어올 수 없었다. 연맹 측에서 사적으로 권력 남용을 해도 되는지 의문스럽다"며 "4월에 있었던 익산선수권 대회도 생활보조가 없어서 불참한 것"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해 장성준 대표팀 감독은 "국가대표 선수가 많다 보니 예산적 부분이 있었다"며 "우리 지도자들이 최선을 다해 선수에게 필요한 부분을 케어했지만, 어떤 도움도 가족만큼 편할 수 없다는 것은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정읍서 문체부장관기
전국 초등 태권도대회

정읍에서 개최된 '문화체육관광부장관기 전국 초등태권도대회'가 지난날 31일부터 이달 4일까지 국민체육센터에서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국내 태권도 인재 육성을 목표로 한국초등학교태권도연맹이 주최하고 전북특별자치도태권도협회와 정읍시태권도협회가 주관한 이번 대회는 전국 각지에서 모인 2,100여명의 태권도 선수들이 참가해 치열한 경합을 펼쳤다. 대회는 대한태권도협회 선수등록자인 A리그와 미등록자인 B리그로 나누어 진행됐다. 선수들은 품새와 겨루기 경기에서 각자 값고된 기량을 마음껏 발휘했다. 특히, 시 체육인재양성 프로그램의 우수자인 정읍초등학교 6학년 김미승 선수가 공인품새 개인전에서 3위를 차지해 점수 태권도의 밝은 미래를 확인할 수 있었다.

대회 중간인 지난 1일에는 트로트가수 김태연의 한국초등태권도연맹 홍보대사 위촉식이 열렸다.

/정읍=김대환 기자

무주 태권도원 2024 세계 태권도 옥타곤 다이아몬드 게임 6~8일 개최

새로운 방식... 새로운 볼거리...

한국 비터 9개국 1100여명 선수 참가... 혼성 단체전도 진행

세계태권도연맹과 태권도진흥재단과 대한태권도협회는 '무주 태권도원 2024 세계태권도 옥타곤 다이아몬드 게임' (이하, 옥타곤 다이아몬드 게임)을 6일부터 8일까지 태권도원 T1 경기장에서 개최한다.

'옥타곤 다이아몬드 게임'은 박진감 넘치는 진행을 위해 팔각형 경기장에서 치러진다. 자연스러운 선수 입장과 교체, 최첨단 디스플레이를 적용한 경기장 디자인 등 화려한 태권도, 볼거리 넘치는 태권도를 선보일 예정이다.

이번 대회에는 한국을 비롯해 프랑스, 호주, 시리아, 몽골, 멕시코 등 9개국에서 1100여 명의 선수가 참가한다.

경기종목은 개인전 8체급, 복식 4

체급과 함께 최근 IOC가 주목하고 있는 '혼성 단체전'도 진행한다. IOC는 양성평등을 위해 올림픽 혼성 경기를 확대해 나가고 있는 가운데 태권도 역시 혼성단체전을 통해 IOC의 양성평등 가치 실현에 동참하고 2028 LA 올림픽 정식종목 추가 채택을 추진하고 있다.

태권도진흥재단 김중현 이사장은 "최첨단 디스플레이 기술과 흥미로운 진행을 통한 새로운 볼거리와 즐길 거리를 제공하는 등 성공적인 대회를 통해 혼성 단체전이 2028 LA 올림픽 태권도 종목에 추가 선정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많은 분들이 태권도원을 찾아 새로운 방식, 박진감 넘치는 태권도 경기를 만나보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무주 태권도원 2024 세계태권도 옥타곤 다이아몬드 게임'은 SBS스포츠 채널을 통해 방송되고 WT 공식 유튜브 채널 실시간 스트리밍도 진행할 예정이다.

/무주=전문선 기자

유네스코생물권보전지역 고창